

건축·도시 분야의 발전, 국민 행복 이루는 구심점을 꿈꾸다

- 1 먼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새로운 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로 기대며 나아가자’고 하신 취임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취임하신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계가 전례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 기관장의 역할과 막중한 책임, 주변의 큰 기대를 전해 들었고 진심 어린 조언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밀알 삼아, 재임 기간 동안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서로 기대며 최선을 다하자’는 것도 이러한 저의 다짐을 담아 한 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뜻을 모아 건축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2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도시·건축 분야의 다양한 단체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기관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연구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건축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고 발전하였으며, 도시는 인간 정주(定住)의 역사와 그 궤를 함께 해왔습니다. 건축·도시공간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우리의 삶과 생활의 일부로 인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건축과 도시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연구의 토대로 삼아, 시대 속 건축과 도시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견하여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무겁지만 뜻있는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 업무를 지원함과 동시에 민간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연구소,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한 발 앞서서 정책을 선도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연구소를 꿈꿉니다.

우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간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도시공간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며 정책추진 방향과 실행 방법론을 제공하는,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공간의 많은 부분은 민간 부문에 의해 시장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 시장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민간 부문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건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은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을 선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건축·도시공간의 양적 팽창을 위한 개발 시대에서 환경의 질적 향상을 중요시하는 시기로 들어섰습니다. 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새로운 수요를 파악해서 건축정책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방향의 건축·도시공간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우리나라 건축·도시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일을 선도하고 이를 위한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소 설립 당시 벤치마킹했던 각국의 연구소와 연계를 강화하고 호혜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국내 산업이 국외로 진출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은
기술의 산물이나
개발 대상이기에 앞서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삶터입니다.
‘좋은 건축과 행복한
도시란 무엇인가,’
그 본질과 조건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3 지난 8월 연구소 이전과 함께 ‘세종 시대’를 맞이하였고, 어느덧 개소 10주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현 시점에서 연구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연구소가 태동기와 정착기를 거쳐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새 목표에 걸맞게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한 건축과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를 발굴하여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설립 이후, 연구소는 다양하면서도 폭넓은 분야에서 건축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질적·양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미래 지향적 건축·도시공간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며, 건축·도시문화를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 분야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창조 경제 발전 주축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문화와 산업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하나의 목표로 융합하여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패러다임과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건축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건축·도시공간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건축정책을 제시하며 그 운영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4 연구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연구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8년 동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재생, 공공건축, 공간복지, 건축자산, 녹색건축, 국토경관, 보행환경, 범죄예방 환경설계, 건축서비스 산업 등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 현안과 이슈에 대해 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살기 좋고 질 높은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이에 기반이 되는 연구 성과를 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소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 부처에서 의뢰하는 연구와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건축 분야 관련 법적·정책적 사안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안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 연구를 상의하달식(top-down)으로 수행할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하의상달식(bottom-up) 연구주제 발굴과 수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문화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만, 건축과 도시공간은 기술의 산물, 개발 대상이기에 앞서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자 우리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삶터입니다. 세부 주제와 개별 사안 중심이었던 기존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좋은 건축과 행복한 도시란 무엇인가’, 그 본질과 조건에 대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문화·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때 건축·도시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5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축설계 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건축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계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모두의 노력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3)」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법정 업무를 시작했으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공공건축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발주 방식을 제안하며 관련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좋은 설계자가 좋은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변화하면 민간 건축 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간 건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협정, 결합건축 등 작은 단위에서 건축물 리뉴얼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연구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에서는 지자체의 임의 규제나 과도한 건축 심의 등 불합리한 규제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설계 대가를 합리화하여 건축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건축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며 우리 고유의 건축자산을 진흥하고 나아가 국가의 문화자산으로 키우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한국 건축의 세계화’에 큰 관심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은 역사적·문화적 의미만으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국가의 문화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수요에 대응하는 자연적이고 건강한 주거 형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011년 일찍이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를 진흥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센터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지난 6월부터는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거한 국가한옥센터로 지정받아 국가한옥정책의 핵심 연구 집단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한편, 우리 건축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건축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연구, 한옥 확산과 효율적 생산을 위한 연구, 한국적 도시공간을 현대의 도시공간 구조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건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건축과 도시 분야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연구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7 연구소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신입 소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만, 낯선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직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하는 것이 즐겁고 일상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가 이전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왔지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내려온 경우도 많고 일부 직원들은 매일 장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공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좋은 도시입니다만, 수도권에 비해서는 아직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모든 직원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고 이를 동력으로 스스로 동기부여하며 창의적인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연구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8 마지막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건축·도시 분야 발전과 진흥의 시작점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7년 연구소 개소 이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건축문화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 건축정책관이 신설되는 등 국가 정책과 조직, 제도에서 건축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건축·도시 분야 모두가 합심해서 이러한 변화가 건축·도시 분야의 발전, 우리나라 건축·도시공간의 질적 향상,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새로운 걸음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